

## 동료평가를 활용한 실습교육평가방법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학습태도, 비판적사고 및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

김영희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 The Effects of Practice Education Evaluation using Peer Evaluation on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Competency, Learning Attitude, Critical thinking and Self-Leadership

Yeong-Hee Kim  
Jinju Health College Nursing Department

**요약** 본 연구는 동료평가를 활용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실습교육평가방법이 졸업반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학습태도, 비판적사고 및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핵심기본간호술 교과목 수강자 4학년 학생으로 총 326명이었으며, 자료수집은 2018년 한 학기동안 실시하였다. 자료는 AMOS 20.0과 SAS 9.3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동료평가를 활용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의 평균평점은 3.77(±.62)점, 학습태도 3.17(±.47)점, 비판적 사고는 3.44(±.41)점, 셀프리더십은 3.60(±.49)점으로 나타났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은 성별, 간호학 전공만족도, 핵심기본간호술 실습만족도, 동료평가 전 사전학습여부, 동료평가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은 학습태도( $r=.295, p<.001$ )와, 비판적사고는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r=.384, p<.001$ ), 학습태도( $r=.623, p<.001$ )와, 셀프리더십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r=.353, p<.001$ ), 학습태도( $r=.529, p<.001$ ), 비판적사고( $r=.690, p<.001$ )와 유의한 순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비판적사고, 셀프리더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학습태도, 비판적사고 및 셀프리더십을 고려한 핵심기본간호술 실습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 peer evaluation method on the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competency, learning attitude, critical thinking and self-leadership of graduating nursing students. A survey using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326 nursing student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AS(ver. 9.8) and AMOS(ver.20.0) The results of peer evaluation showed that the fundamental nursing skills competency was 3.77(±.62), the learning attitude was 3.17(±.47), critical thinking was 3.44(±.41) and self-leadership was 3.60(±.49).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competency showed statistical differences based on gender, major satisfaction, practice satisfaction, pre-learning and satisfaction with the peer evaluation.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competenc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learning attitude( $r=.295, p<.001$ ), critical thinking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competency( $r=.384, p<.001$ ) and learning attitude( $r=.623, p<.001$ ), and finally, self-leadership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competency( $r=.353, p<.001$ ), learning attitude( $r=.529, p<.001$ ) and critical thinking( $r=.690, p<.001$ ). The factors affecting fundamental nursing skills competency were critical thinking and self-leadership. Core fundamental practical education programs to improve learning attitude, critical thinking and self-leadership need to be developed to increase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Keywords** : Attitude, Education, Leadership, Nursing, Thinking

본 논문은 진주보건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Yeong-Hee Kim(Jinju Health College)

email: gyumdung20@naver.com

Received June 17, 2019

Revised July 19, 2019

Accepted September 6, 2019

Published September 30, 2019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생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으로는 전공지식과 간호술의 통합적응능력, 문제해결을 위한 비판적사고 능력, 리더십 능력 등으로 이것은 향후 간호사로서의 정체감을 형성하고 임상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본역량 증진에 필수적인 사항이다[1]. 그러나 간호학 실습교육은 주로 관찰(37.4%)과 구두설명(32.4%)으로 진행이 되면서 학생들의 실기능력 저하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2]. 이에 환자를 안전하게 간호하는 임상수행능력의 부각으로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이 필수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의 하나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이다[3]. 이러한 수행능력은 간호전문직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간호수기술 교육을 위해서는 잘 구조화된 교수학습 방법이 필요하다[4]. 따라서 의료계 및 특히 간호사의 실무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문성 강화와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학습태도와 학습동기를 촉진시키고 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동료와의 관계가 중요하다[5-7]. 다양한 동료와의 관계형성은 업무 성과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으며, 팀워크와 업무 성과에 효율적이어서 전문성 개발과 향상을 위해서는 동료평가 및 그에 따른 자기성찰의 중요성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7-8].

이처럼 동료평가는 효과적인 교수전략으로서 경쟁자이기보다는 협력자로 인식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기술과 학습능력 배양에 적합한 방식이다[9]. 이는 평가과정에 단순히 정·오 확인만을 위한 평가가 아닌 학습태도 및 실습수행 과정에 중점을 둔 평가이므로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평가활동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실습교과목에서는 쉽고 즐겁게 배우게 될 때 학습태도가 증진된다[10].

학습태도는 학생 스스로 학습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세워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므로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수학습 전략으로 강구되어야 한다[11]. 이는 교육과정을 통해 경험하게 되고 변화하여 지식과 기술 습득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12]. 이처럼 동료평가는 편안한 학습 분위기로 학습태도가 향상되며 평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깨닫고 수정을 하여 자기 비판적이고 자기반성적인 사고력을 높이므로 비판적 사고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13].

비판적 사고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어서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는 핵심요소가 되는 간호교육 성과의 주요한 지표가 되므로[11], 동료평가를 하면서 자신의 내면화된 지식을 평가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비판적 사고력이 배양되고 깊이 있는 학습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14]. 이처럼 동료평가를 통해 학습자간의 교수학습의 과정을 공유하고 학습자인 동시에 평가자로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해나가고 동료들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스스로 리더십을 발견하게 된다[15].

간호교육에서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방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서의 새로운 과제를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16]. 특히 셀프리더십은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으며 학습이나 교육을 통해서 강화되는데 간호현장에서의 간호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독자적이고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을 이끄는 셀프리더십을 가져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해야 한다[17]. 이는 학습을 통해 향상되며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게 되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를 이끌게 되기 때문이다[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료평가를 활용한 실습교육평가 방법은 학습효과를 강화시키는 수업방법중의 하나로[18] 학습자 스스로의 자기통찰력 강화로 역동적이고 자율적으로 학습태도를 향상시켜서 간호수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합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학습분위기를 조성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 할 것이다[14].

따라서 졸업반 간호학생에게 동료평가를 활용한 실습교육평가를 통해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학습태도, 비판적사고 및 셀프리더십 정도, 이들의 관계 및 이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실습교육의 효율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 목적은 4학년 1학기에 개설된 핵심기본간호술 교과목 수강생 대상으로 동료평가를 활용한 핵심기본간호술 교육평가방법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학습태도, 비판적사고 및 셀프리더십 정도, 변수들 간의 관계 및 이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료평가를 활용한 핵심기본간호술 교육평가방법에 대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학습태도, 비판적사고 및 셀프리더십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제 특성별 동료평가를 활용한 핵심기본간호술 교육평가방법에 대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학습태도, 비판적사고 및 셀프리더십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동료평가를 활용한 핵심기본간호술 교육평가방법에 대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학습태도, 비판적사고 및 셀프리더십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간의 직간접효과를 파악한다.

## 2. 본론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 대학 4학년 전공필수 pass 교과목인 핵심기본간호술 수강학생 대상으로 동료평가를 활용한 핵심기본간호술 교육평가방법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학습태도, 비판적사고 및 셀프리더십 정도, 변수들간의 관계 및 이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2.2 실습교육평가방법

핵심기본간호술은 4학년 1학기에 개설된 전공필수 실습 교과목으로 핵심기본간호술 항목 20개 중에 8개를 핵심기본간호술 체크리스트 점수를 근거로 핵심기본간호술 rubrics에 의거하여 총점이 80점 이상이면 pass로 간주하였다. 핵심기본간호술 rubrics은 4가지 내용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는 지식, 기술, 태도, 핵심기본간호술 사례별 선택 여부로 잘함, 보통, 못함으로 구성된 평가표이다.

한 개 실습실 당 수강생 인원은 18명 이내이며 13주 수업 중 1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8개 항목에 대한 실습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 후, 5주차부터 12주차까지는 매 주차마다 핵심기본간호술 1개 항목씩 동료평가를 하였으며 13주차에는 80점 이하인 학생은 항목별로 재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8개 항목은 난이도 하 항목 1개(경구투약), 중 항목 5개(위관영양, 단순도뇨, 배출관장, 격리실출입, 기본소생술), 상 항목 2개(정맥주입, 수혈요법)로 구성하였다. 8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는 수행, 미수행으로 구분되었으며 수행, 미수행 개수에 의해 핵심기본간호술 rubrics의 총점 80점 이상을 pass한 것으로 하였다.

동료평가자는 평가당일에 항상 1번부터 18번까지 적힌 제비를 무작위로 뽑도록 하여 번호 순으로 짝을 하도

록 했으며 빠른 번호의 학생이 먼저 평가하도록 한 후, 바로 역할을 바꾸어서 피평가자를 하도록 했다.

동료평가방법으로 평가자는 핵심기본간호술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의거하여 수행, 미수행에 체크한 후 핵심기본간호술 rubrics의 4가지 구성인 지식, 기술, 태도, 사례별 선택여부에 점수를 도출하여 바로 피평가자와 같이 점수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상호간에 점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미수행 근거를 간단히 메모하도록 하였으며 피평가자가 본인의 점수에 수궁할 경우에 한해 평가를 종료하고 역할을 바꾸도록 하였다.

실기평가가 이루어지는 주에는 18명의 학생이 동시에 평가할 수 있도록 9개의 실습준비물 세트를 구성했다. 매주 50분 수업 중 평가에 활용되는 시간은 평균 35분이었다.

### 2.3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간호학부 4학년 재학생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허락한 간호학생 336명이었다. 표본의 크기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sample size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1.9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에 필요한 최소표본크기로 구한 결과 유의수준( $\alpha$ ) 0.05, 통계적 검정력( $1-\beta$ ) 0.95, 효과크기 0.15로 계산하였을 때 표본크기는 178명 이상으로 산출되어, 336명 중 설문 응답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10명을 제외한 326명(97.0%)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2.4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내용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8문항, 학습태도 16문항, 비판적사고 27문항, 셀프리더십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2.4.1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능력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개발한 “핵심기본간호술 프로토콜” 제 “4.1판”에 근거하여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점수로 Bang(2014)[15]의 선행연구에 근거한 8문항의 5점 척도로 매우 잘 할 수 있다 5점에서 전혀 할 수 없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hrobach's  $\alpha$ 는 .9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 2.4.2 학습태도

학습태도란 학습자가 학습환경을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며 반응하는 인지적이고 정서적이며 생리학적 특성의 복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16],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학습태도 측정도구를 Hwang(2003)[17]이 수정보완한 16문항으로 하였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이루어진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태도가 좋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도 Chrobach's  $\alpha$ 는 .83이었으며, Hwang의 도구에서는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4이었다.

#### 2.4.3 비판적사고

비판적 사고란 학습자들의 지식, 태도, 성과의 조합으로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평가하는 사고의 한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22], 본 연구에서는 Yoon(2004)[23]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이루어진 5점 척도로 총 27개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사고 성향이 높음을 의미하며 7개 영역으로 세분화되었다. 지적열정과 호기심(5문항), 신중성(4문항), 자신감(4문항), 체계성(3문항), 지적 공정성(4문항), 건전한 회의성(4문항), 객관성(3문항)이다. 27개 문항 중 2개 문항은 역문항이며 Yoon의 연구에서 신뢰도Chrobach's  $\alpha$ 는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 2.4.4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이란 자기 자신에게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므로 교육과정 및 업무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력으로서[20], 본 연구에서는 Manz(1986)가 개발한 설문지를 Kim(2002)[21]이 수정보완하였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이루어진 5점 척도로 총 18문항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기대(3문항), 리허설(3문항), 목표설정(3문항), 자기보상(3문항), 자기비판(3문항), 건설적사고(3문항)이다. Kim의 연구에서 신뢰도 Chrobach's  $\alpha$ 는.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 2.5 자료수집 방법

연구기간은 2018년 한 학기이며, 자료수집기간은 개인당 8개 항목의 동료평가를 마친 직후인 2018년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 시작 전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익명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고 본인이 응답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설명하였다. 설문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설문지 작성 중 언제라도 연구 참여 철회가 가능하며 불참은 성적과는 무관함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학습태도, 비판적사고 및 셀프리더십에 대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한 후, 각 실습실과는 다른 층에 위치한 지정강의실 수거함에 자율적으로 넣도록 하였다.

### 2.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9.3과 AMO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일반적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구했다.

둘째,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학습태도, 비판적사고 및 셀프리더십 정도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했다.

셋째, 제 특성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학습태도, 비판적사고 및 셀프리더십 정도는 t-test, ANOVA 및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넷째,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학습태도, 비판적사고 및 셀프리더십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 2.7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졸업학년 간호학생으로 한정되어서 타 대학과의 비교분석이 되지 않았다. 또한 4학년 한 학기 적용된 동료평가를 활용한 핵심기본간호술 실습 교육평가만으로는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학습태도, 비판적사고 및 셀프리더십 정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확대해석 할 수 없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 및 제 특성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능력, 학습태도, 비판적사고 및 셀프리더십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은 여성(84.7%), 입학당시 입학전형은 수시전형(66.0%), 간호학전공 선택 동기는 취업

(36.8%), 졸업 후 진로는 병원(89.6%), 간호학전공 만족도는 보통(47.2%), 핵심기본간호술 수업 만족도는 보통(48.8%), 실기시험 전 사전학습 여부는 하였음(53.1%), 동료평가 만족도는 만족(45.1%)이 가장 높은 순이었다 [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은 성별( $t=-3.57, p<.001$ ), 간호학전공 만족도( $F=3.64, p=.006$ ), 핵심기본간호술 실습 만족도( $F=6.49, p<.001$ ), 동료평가

전 사전학습 여부( $F=12.77, p<.001$ ), 동료평가 만족도 ( $F=5.13,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을 통한 분석결과 간호학 전공 만족도는 만족한 군이 매우 불만족 군 보다, 실기시험 전 사전학습을 매우 열심히 한 군이 보통 군 보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학습태도는 성별( $t=-2.78, p=.007$ ), 입학전형( $t=-2.14, p=.033$ ), 간호학전공 선택

Table 1.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 Learning Attitude, Critical thinking and Self-Leadershi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26)

Variables	Categories	n(%)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		Learning Attitude		Critical thinking		Self-Leadership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Gender	Female	276(84.7)	3.71±.61	-3.57(<.001)	3.14±.43	-2.78(.007)	3.40±.38	-4.16(<.001)	3.56±.47	-3.53(<.001)
	Male	50(15.3)	4.05±.60		3.39±.61		3.69±.48		3.82±.51	
Type of Admission	Special quota	215(66.0)	3.76±.58	-.08(.935)	3.13±.44	-2.14(.033)	3.42±.38	-1.3(.195)	3.58±.48	-.64(.525)
	General quota	111(34.1)	3.77±.70		3.25±.50		3.49±.46		3.62±.50	
Entering Motivation	Aptitude	70(21.5)	3.86±.65	.76(.577)	3.32±.55	2.82(.017)	3.55±.44	.11(.009)	3.76±.53	2.78(.018)
	Employment	120(36.8)	3.71±.61		3.07±.42		3.34±.39		3.51±.44	
	Recommendation	55(16.9)	3.83±.66		3.18±.38		3.49±.39		3.58±.46	
	Longing	61(18.7)	3.75±.56		3.19±.46		3.46±.39		3.57±.49	
	School grade	15(4.6)	3.67±.76		3.28±.61		3.56±.48		3.56±.58	
	Volunteer, Mission	5(1.5)	3.73±.51		3.18±.33		3.34±.24		3.89±.35	
Desired Work	Hospital nurse	292(89.6)	3.76±.62	.45(.774)	3.18±.45	2.65(.034)	3.44±.41	.46(.765)	3.60±.49	1.57(.183)
	Health care teacher	8(2.5)	4.05±.77		3.45±.85		3.56±.40		3.80±.57	
	Public official	19(5.8)	3.76±.49		3.00±.36		3.38±.42		3.43±.45	
	Entered graduate	1(0.3)	3.63±.00		3.69±.00		3.81±.00		4.39±.00	
	etc.	6(1.8)	3.83±.98		2.80±.74		3.45±.48		3.56±.4	
Nursing Major Satisfaction	Very dissatisfaction	1(0.3)	3.00±.00 <sup>a</sup>	3.64(.006)	2.00±.00 <sup>e</sup>	24.41(<.001)	3.22±.00	10.69(<.001)	3.78±.00	13.89(<.001)
	Dissatisfaction	13(4)	3.77±.61		2.77±.39		3.26±.46		3.32±.42	
	Moderate	154(47.2)	3.67±.60		3.03±.38		3.33±.36		3.47±.42	
	Satisfaction	133(40.8)	3.80±.62 <sup>b</sup>		3.29±.41		3.51±.37		3.66±.47	
	Very satisfaction	25(7.7)	4.08±.69		3.74±.59 <sup>b</sup>		3.81±.57		4.14±.56	
Practice Satisfaction	Very dissatisfaction	4(1.2)	3.84±.31	6.49(<.001)	2.50±.40 <sup>d</sup>	26.87(<.001)	3.13±.57 <sup>c</sup>	17.4(<.001)	3.24±.52 <sup>b</sup>	17.81(<.001)
	Dissatisfaction	19(5.8)	3.63±.56		2.82±.42		3.31±.20		3.40±.37 <sup>b</sup>	
	Moderate	159(48.8)	3.62±.60		3.04±.40		3.30±.35		3.45±.45 <sup>b</sup>	
	Satisfaction	120(36.8)	3.90±.60		3.30±.38		3.57±.37		3.73±.43	
	Very satisfaction	24(7.4)	4.15±.67		3.78±.54 <sup>a</sup>		3.85±.56 <sup>a</sup>		4.14±.51 <sup>a</sup>	
Pre-Learning before Skill test	Not at all	3(0.9)	4.33±.58	12.77(<.001)	2.35±.30 <sup>b</sup>	8.71(<.001)	2.99±.62 <sup>c</sup>	8.9(<.001)	2.91±.32 <sup>b</sup>	6.99(<.001)
	No	14(4.3)	3.72±.47		3.03±.49 <sup>b</sup>		3.43±.34		3.39±.48	
	Average	100(30.7)	3.59±.62 <sup>b</sup>		3.09±.38 <sup>a</sup>		3.33±.37 <sup>b</sup>		3.52±.44	
	Conducted	173(53.1)	3.74±.54		3.18±.43 <sup>a</sup>		3.45±.38		3.60±.46 <sup>a</sup>	
	Very conducted	36(11)	4.36±.69 <sup>a</sup>		3.51±.64 <sup>a</sup>		3.76±.49 <sup>b</sup>		3.91±.59 <sup>b</sup>	
Peer-Evaluation Satisfaction	Very dissatisfaction	2(0.6)	4.00±.00	5.13(<.001)	2.56±.62 <sup>e</sup>	20.75(<.001)	3.54±.03	18.04(<.001)	3.47±.43	12.22(<.001)
	Dissatisfaction	10(3.1)	3.54±.41		2.87±.28		3.21±.46		3.47±.38	
	Moderate	108(33.1)	3.60±.61		2.95±.35		3.23±.31		3.40±.45	
	Satisfaction	147(45.1)	3.80±.56		3.22±.42		3.51±.37		3.63±.45	
	Very satisfaction	59(18.1)	4.02±.74		3.52±.53 <sup>b</sup>		3.70±.46		3.91±.49	

동기(F=2.65,  $p<.034$ ), 간호학전공 만족도(F=24.41,  $p<.001$ ), 핵심기본간호술 실습 만족도(F=26.87,  $p<.001$ ), 실기시험 전 사전학습 여부(F=8.71,  $p<.001$ ), 동료평가 만족도(F=20.75,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을 통한 분석결과 간호학 전공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 군이 매우 불만족 군 보다, 핵심기본간호술 실습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 군이 매우 불만족 군 보다, 실기시험 전 사전학습을 매우 열심히 한 군, 열심히 한 군, 보통인 군, 조금 한 군이 전혀 안 한 군보다, 동료평가에 매우 만족 군이 매우 불만족 군 보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비판적사고는 성별( $t=-4.16$ ,  $p<.001$ ), 입학동기(F=.11,  $p=.009$ ), 간호학전공 만족도(F=10.69,  $p<.001$ ), 핵심기본간호술 실습 만족도(F=17.4,  $p<.001$ ), 동료평가 전 사전학습 여부(F=8.9,  $p<.001$ ), 동료평가 만족도(F=18.04,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을 통한 분석결과 핵심기본간호술 실습 만족도에 매우 만족 군이 매우 불만족 군 보다, 실기시험 전 사전학습을 매우 열심히 한 군이 보통인 군, 전혀 안 한 군보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셀프리더십은 성별( $t=-3.53$ ,  $p<.001$ ), 간호학전공 만족도(F=13.89,  $p<.001$ ), 핵심기본간호술 실습 만족도(F=17.81,  $p<.001$ ), 동료평가 전 사전학습 여부(F=6.99,  $p<.001$ ), 동료평가 만족도(F=12.22,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을 통한 분석결과 핵심기본간호술 실습만족도에 매우 만족군이 보통 군, 불만족 군, 매우 불만족 군 보다, 동료평가 전 사전학습을 매우 열심히 한 군, 열심히 한 군이 전혀 안 한 군 보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1].

### 3.2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학습태도, 비판적사고 및 셀프리더십

동료평가를 활용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은 3.77(±.62)점, 학습태도 3.17(±.47)점, 비판적사고는 전체 3.44(±.41)점, 셀프리더십은 전체 3.60(±.49)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Mean Score for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 Learning Attitude, Critical thinking and Self-Leadership (N=326)

Variables	Categories	M±SD.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		3.77±.62
Learning Attitude		3.17±.47
Critical Thinking	Intellectual passion, Curiosity	3.35±.66
	Discretion	3.29±.58
	Self-confidence	3.43±.62
	Organization	3.16±.67
	Intellectual justice	3.73±.59
	Wholesome conference	3.46±.56
	Objectivity	3.66±.57
	All	3.44±.41
Self-Leadership	Self-expectation	3.62±.65
	Rehearsal	3.67±.66
	Goal Setting	3.53±.69
	Self-reward	3.92±.65
	Self-criticism	3.44±.75
	Constructive thinking	3.39±.67
All	3.60±.49	

### 3.3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학습태도, 비판적사고 및 셀프리더십간의 관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은 학습태도( $r=.295$ ,  $p<.001$ )와, 비판적사고는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r=.384$ ,  $p<.001$ ), 학습태도( $r=.623$ ,  $p<.001$ )와, 셀프리더십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r=.353$ ,  $p<.001$ ), 학습태도( $r=.529$ ,  $p<.001$ ), 비판적사고( $r=.690$ ,  $p<.001$ )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for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 Learning Attitude, Critical thinking and Self-Leadership (N=326)

Variables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	Learning Attitude	Critical Thinking	Self-Leadership
	r (p)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	1			
Learning Attitude	.295 (<.001)	1		
Critical Thinking	.384 (<.001)	.623 (<.001)	1	
Self-Leadership	.353 (<.001)	.529 (<.001)	.690 (<.001)	1

### 3.4 비판적사고와 셀프리더십을 통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최대우도 추정법을 이용하였으며 적합도 검증은  $\chi^2$ 통계량, 기초 적합지수(GFI), 근사원소평균제곱잔차(RMSEA), 터커-루이스지수(TLI), 비교적합지수(CFI), 표본부합지수(NFI), 조정적합지수(AGFI)를 이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GFI .90이상, SRMR .05이하, RMSEA .05~.08이하, TLI .95이상, CFI .90이상, NFI .90이상, AGFI .85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만족도와 동료평가 전 사전학습여부가 비판적사고와 셀프리더십을 통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은 동료평가 전 사전학습여부( $\beta=.101, p=.049$ ), 셀프리더십( $\beta=.223, p=.019$ ), 비판적 사고( $\beta=.217, p=.011$ ), 에 정적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SMC=.217). 비판적 사고는 동료평가 전 사전학습여부( $\beta=.144, p=.000$ )핵심기본간호술 실습만족도( $\beta=.343, p=.007$ )에 정적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SMC=.172). 셀프리더십은 핵심기본간호술 실습만족도( $\beta=.106, p=.026$ ), 비판적사고( $\beta=.704, p=.000$ )에 정적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SMC=.604) [Table 4].

Table 4. Path Coefficient

Variables	Categories	Un-P.C	S.E	P.C	C.R	P	SMC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Competency	Pre-Learning	.112	.044	.101	1.888	.059	.217
	Practical Satisfaction	.032	.046	.026	.464	.643	
	Self-Leadership	.125	.164	.223	2.35	.019	
	Critical Thinking	.272	.128	.217	2.536	.011	
Critical Thinking	Pre-Learning	.121	.029	.144	2.676	.000	.172
	Practical Satisfaction	.425	.029	.343	6.377	.007	
Self Leadership	Pre-Learning	.081	.021	.075	1.675	.094	.604
	Practical Satisfaction	.125	.022	.106	2.232	.026	
	Critical Thinking	.502	.059	.704	1.337	.000	

Un-PC(Unstandard Path Coefficient) S.E(Standard Error)  
P.C(Path Coefficient) C.R(Critical Ratio)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셀프리더십( $p=.025$ ), 비판적 사고( $p=.012$ ) 순으로 나타났다. 동료평가 전 사전학습여부는 직접적( $p=.004$ )으로, 셀프리더십은 직접적( $p=.002$ ), 간접적( $p=.004$ )으로, 비판적 사고는 직접적( $p=.002$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in modified path model (N=326)

Variables	Categories	Direct effect(P)	Indirect effect(P)	Total effect(P)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Competency	Pre-Learning	.101(.004)	-	.172(.117)
	Practical Satisfaction	.026(.126)	.152(.067)	.178(.664)
	Self-Leadership	.217(.002)	.157(.004)	.373(.025)
	Critical Thinking	.223(.002)	-	.223(.012)

## 4. 고찰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간호 수기술 습득을 위한 다양한 교육방법 중의 일환으로 동료평가를 활용한 실습교육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각 변수들의 정도와 그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은 3.7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3]의 4학년 대상의 핵심기본간호술 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3.63점, 3개 학교 졸업반 간호학생 대상의 Kim의 연구[22]에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평균은 3.75점인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본 연구대상자들의 점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 및 실습만족도 및 동료평가에 만족한 단일수록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에 차이를 보인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 연구대상자들이 직접적인 평가자가 되어서 학습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학습이 이루어진 것이며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어 실습실 실습환경에서 지식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핵심기본간호술 술기능력 평가는 협업 테스트가 개인 테스트보다는 오히려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비판적인 분석을 통해 심층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서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23], 다면적인 방법을 활용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서의 실습교육 표준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료평가 과정은 간호학생의 대

인관계 기술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므로 간호사의 실무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동료평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6]. 의과대학생 대상의 동료평가 연구에서 동료는 서로 자주 상호작용하므로 행동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제공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어서 의과대학생의 71%에서는 동료를 평가하는 것이 편안하다고 하였으며[5], 동료평가는 학업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을 평가하는데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하였다[7]. 이처럼 동료평가는 동료의 성장을 돕고 자기성찰을 도모하는데 유용하기는 하지만 성격에 반영하게 된다면 익명성 보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루브릭과 같은 도구 사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6]. 본 연구에서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핵심기본간호술 항목별 체크리스트와 이를 다시 지식, 기술, 태도로 통합한 루브릭을 이용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동료평가를 위한 익명성은 보장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에는 익명성을 보장한 동료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학습태도는 3.17점으로 Psung[11]의 4주 동안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3학년 간호학생의 학습태도 3.45점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핵심기본간호술 점수가 80점 이상만 되면 pass를 하게 되어 동료들과의 과도한 경쟁을 할 필요가 없고 늘 함께 한 동료에 대한 관대화 심리일 것이다. 또한 학습태도는 실습 및 동료평가에 만족한 군일수록 동료평가 전에 사전학습을 한 군일수록 학습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정형화된 교육환경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학습방법으로 학습촉진의 요소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 시드니 대학 간호학생 대상의 동료학습을 적용한 결과에서는 기술습득에 유용한 방법은 학생들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동료평가의 경험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실습역량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어 학습에 필요한 가치 있는 전략이라고 하였다[24]. 이처럼 동료의 실습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게 되는 것도 학습태도 형성과 학습촉진에 도움이 되므로 긍정적인 학습태도를 위한 교수학습 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비판적 사고는 3.44점으로 Psung[10]의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3학년 간호학생의 비판적사고 점수 3.63점, Son등[25]의 시뮬레이션 실습교육프로그램 후의 3학년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 점수 3.72점, Je와 Bang[26]의 3-4학년 간호학생 대상의 3.54점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모형 중심의 실기평가방법의 제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하위

영역의 <체계성>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도 체크리스트에 의거하여 평가를 하지만 평가자의 논리적인 일관성 유지가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평가의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상세히 설명한 세부평가 매뉴얼을 사전에 제시하여 각자 연습하고 세부매뉴얼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실습평가 특성상 행동수행 평가의 어려움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일개 교과목에서의 실습교육 평가방법만으로는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함양시키기에는 미비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교육 교과과정이 개설되고 다양한 교과목에서의 동료평가를 활용한 반복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동료학습은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을 강화하고 비판적인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치 있는 학습이어서 핵심기본간호술 습득에 도움이 되고 학업성적 및 학업성취와도 상관성이 있어서 교육기관 인증기준 중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14].

본 연구에서의 셀프리더십은 3.60점으로 Jang[27]의 간호사 대상의 셀프리더십 점수 3.36점 보다는 높았으나, 간호학생 대상의 Dong[28]의 3.63점 보다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요인에서 <자기보상>점수는 3.92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건설적 사고>는 3.3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Je와 Bang의 연구[26], Dong[2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및 동료평가에 만족한 군일수록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구결과에서처럼 수동적인 수신자가 아닌 적극적인 평가자의 역할을 완수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치가 있는 보상을 스스로에게 제공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행동에 초점을 둔 행동전략으로서[28], 동료평가를 활용한 실습교육평가방법은 내재적으로 동기부여의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셀프리더십 향상에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건설적 사고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세부적인 평가가 필요한 어려운 상황을 기회요인으로 여기기보다는 장애요인으로 인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셀프리더십은 개인에 따라 잠재력에 큰 차이가 있으며 학습이나 교육에 의해 고무되고 발전되고 유지될 수 있다고 하였다[29]. 따라서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간호를 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필요하므로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방법을 설계하고[30] 변화하는 의료전달 시스템의 도전 과제를 충족하기 위해 간호 리더십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학습자 중심의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동료평가를 활용한 실습교육평가 방법은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학습태도,



비판적사고 및 셀프리더십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료에게 실시한 나름대로의 피드백 과정을 통한 비판적사고와 학습태도와의 관련성 및 스스로 평가의 주체가 된다는 셀프리더십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과의 상관성을 의미할 것이다. 학사과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임상수행 영역인 전문성, 의사소통, 팀워크, 간호과정 및 환자안전 영역에서 동료평가와 교수평가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연구한 결과도 있었으나 [6],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교수평가와 함께 동료평가와 자가평가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학생들의 임상성적을 평가하기에는 보완적인 평가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31], 동료평가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있지 않으면 불안감과 적대적인 학습 환경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8]. 그러나 의과대학생 대상으로 해부학실습과정에서의 전문 직업성을 동료가 평가하여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연구에서는 학점과 실기시험 성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료평가는 학점 및 국가시험 성적과도 매우 상관관계가 높아서 전문 직업성 평가를 위해서는 동료평가가 유용하다고 하였다[7]. 본 대학에서의 핵심기본간호술은 절대평가 교과목으로 간호수행 여부에 체크해서 루브릭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면 성취수준이 달성된 것으로서 동료평가는 절대평가시에 더욱 유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실습교육에 동료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동료의 우수함과 미흡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약점을 깨닫거나 동료를 보고 배우기 위한 과정이고 경험과 교육수준이 비슷한 동료관계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간호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되면서 전문적인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설명과[29] 교육목표에 따른 평가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은 동료평가 전에 사전학습을 할수록, 비판적사고 정도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 정도가 높을수록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셀프리더십과 비판적사고로 나타났다. 졸업반 간호학생 대상의 Kim[3]의 연구에서는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정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Kim[22]의 3개 지역 간호학과 4학년 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핵심기본간호술 실기교육 만족도에, Je와 Bang[26]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비판적사고와 임상수행 능력에, Dong[28]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간호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실습시간을 증가시키는 것 보다는 실습교육방법에 대한 교육전략으로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과 수행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어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간호수행을 정확히 조작화해서 측정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미래 간호사를 준비시키는 중요한 교육전략으로 실습 교육 시 동료평가를 잘 설계하여 동료에게 도움이 되는 피드백 제공방법 및 교수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동료평가시 세부적인 평가내용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체크리스트에 대한 이해와 평가방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평가자 워크숍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동료평가만이 아닌 핵심기본간호술의 숙련도를 향상시키고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동료 교수학습방법도 적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동료평가를 활용한 실습교육평가방법은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자극의 도구로서 학생 중심의 간호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동료평가는 평가과정의 통합을 꾀할 수 있어 기존의 결과 중심 평가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학생교육의 목표달성을 위한 대체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졸업학년 4학년 간호학생 326명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 실습교육평가방법의 일환으로 동료평가 학습방법을 적용하여 핵심기본간호술수행능력, 학습태도, 비판적사고 및 셀프리더십 정도와 상관관계 및 이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동료평가를 활용한 실습교육평가방법은 졸업학년 4학년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학습태도, 비판적 사고 및 셀프리더십과 관련이 있었으며,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사고와 셀프리더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습교육평가방법의 효과측정을 보다 다양화

할 수 있어야 하며 학습자들의 교육 선호도를 파악하여 혁신적인 교수학습 전략이 설계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1] Y. H. Kim, "Learning Motivations, Academic Self-Efficacy, and Problem Solving Processes after Education Evaluatio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10, pp.6176-6186. 2014.  
DOI:<http://dx.doi.org/10.5762/KAIS.2014.15.10.6176>
- [2] K. S. Chung,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www.nursesnews.co.kr/main/main.asp](http://www.nursesnews.co.kr/main/main.asp) (accessed July.14, 2019)
- [3] Y. H. Kim, "The Effects of Core Fundamental Nursing Program on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Competency, Clinical Competency and Problem Solving Proces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9, pp.362-373. 2018.  
DOI:<http://dx.doi.org/10.5762/KAIS.2018.19.9.362>
- [4] H. S. Park, J. Y. Han,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20, No.4, pp.438-448, 2013.  
DOI:<http://dx.doi.org/10.7739/jkafn.2013.20.4.438>
- [5] R. A. Kovach, D. S. Resch, S. J. Verhulst, "Peer Assessment of Professionalism: A Five-Year Experience in Medical Clerkship",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Vol.24, pp.742-746. 2009.  
DOI:<https://doi.org/10.1007/s11606-009-0961-5>
- [6] Y. S. Han, D. H. James, R. H. McLain, "Relationships between student peer and faculty evaluations of clinical performance: A pilot stud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e*, Vol.3, No.8, pp.170-178, 2013.  
DOI:<http://dx.doi.org/10.5430/jnep.v3n8p170>
- [7] B. S. Kam, M. J. Kim, S. I. Joo, S. J. Yune, S. U. Im, S. Y. Lee, S. Yoon, S. Y. Baek, "Relationship of Peer- and Self Assessments in the Anatomy Laboratory and Academic Performance of Gross Anatomy",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Anthropologists*, Vol. 31, No.1, pp.1-7, 2018.  
DOI:<https://doi.org/10.11637/kipa.2018.31.1.1>
- [8] J. Tornwall, "Peer assessment practices in nurse education: An integrative review", *Nurse Education Today*, Vol.71, pp.266-275. 2018.  
DOI:<https://doi.org/10.1016/j.nedt.2018.09.017>
- [9] Y. J. Bae, *The Effects of Self-evaluation and Peer-evalu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and Mathematical Disposition*,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Kook min, Seoul, Korea, pp.1-20, 2009.
- [10] S. P. O'Kell,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tyle, Readiness for Self-Directed Learning and Teaching Preference of Learner Nurses in one Health District", *Nurses Education Today*, Vol.8, pp. 197-204, 1988.  
DOI:[https://dx.doi.org/10.1016/0260-6917\(88\)90149-9](https://dx.doi.org/10.1016/0260-6917(88)90149-9)
- [11] S. J. Psung, *Effects of Problem-based Learning on the Learning Attitud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Skills of Nursing Students: Infant Car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onnam, Kwang Ju, Korea, pp.1-43, 2014.
- [12] C. Y. Cheng, H. M. Tsai, C. H. Chang, S. R. Liou, "New Graduate Nurses' Clinical Competence, Clinical Stress, and Intention to Leave: A Longitudinal Study in Taiwan", *The Scientific World Journal*, 2014.  
DOI:<http://dx.doi.org/10.1155/2014/748389>
- [13] E. S. Jung, *A Study on High-school Students' English Writing and Interest through Peer-evaluation and gSelf-evaluation Comparison and Analysi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Chung-Ang, Seoul, Korea, pp.1-18, 2013.
- [14] S. Gray, M. Wheat, M. Christensen, J. A. Craft, "Peer-to-peer and academic support in developing clinical skills excellence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An exploratory study", *Nurses Education Today*, Vol.73, pp.7-12, 2019.  
DOI:<http://dx.doi.org/10.1016/j.nedt.2018.10.006>
- [15] S. S. Bang, *Relationship among essentials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performance, stress from work and work capability of new clinical nurse*,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ahmyook, Seoul, Korea, pp.5-14, 2014.
- [16] H. A. Alharbi, A. F. Almutairi, E. M. Alhelih, A. S. Alshehry, "The Learning Preferences among Nursing Students in the King Saud University in Saudi Arabia: A Cross-Sectional Survey" *Nursing Research and Practice*, Vol.2017, pp.1-7, 2017.  
DOI:<https://dx.doi.org/10.1155/2017/3090387>
- [17] S. Y. Hwang, *Effects of Problem-based Learning on the Knowledge Achievement, Critical Thinking Ability, Attitude and Motivation towar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onnam, Gwangju, Korea, pp.5-14, 2003.
- [18] Z. Ghazivakili, R. N. Nia, F. Panahi, M. Karimi, H. Gholsorkhi, Z. Ahmadi. "The role of critical thinking skills and learning styles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ir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Advances in Medical Education & Professionalism*. Vol.2, No.3, pp.95-102, 2014.
- [19] J. Yoon.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tholic, Seoul, Korea, pp.3-32, 2004.
- [20] V. L. Silva, S. H. Camelo, M. I. Soares, Z. M. Resck, L. D. Chaves, F. C. Santos, L. A. Leal, "Leadership Practices in Hospital Nursing: A Self of Manager Nurses", *Revista da Escola de Enfermagem da USP*, 2017.  
DOI:<http://dx.doi.org/10.1590/s1980-220x2016099503206>

- [21] H. S.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self-leadership and the job satisfaction at secondary school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oongsil, Seoul, Korea, pp. 5-15, 2002.
- [22] S. O. Kim, *Problem-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onfidence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 Performance*.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Konyang, Daejeon, Korea, pp.24-29, 2017.
- [23] M. Rivaz, M. Momennasab, P. Shokrollahi, "Effect of collaborative testing on learning and retention of course cont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dvances in Medical Education & Professionalism*, Vol.3, No.4, pp.178-182, 2015.
- [24] M. Goldsmith, L. Stewart, Lorraine-Ferguson, "Peer learning partnership: an innovative strategy to enhance skill acquisition in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Vol.26, No.2, pp.123-130, 2006. DOI:<https://doi.org/10.1016/j.nedt.2005.08.001>
- [25] H. G. Son, Y. S. Kim, S. H. Kwon, K. S. Jeong, "The Effects of Simulation-based Practice Program on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Process of the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Vol.13, No.1, pp.63-69, 2018. DOI:<https://dx.doi.org/10.5116/ijme.5c39.b55b>
- [26] N. J. Je, S. Y. Bang, "The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self-concept of nursing profession in nursing students on self leadership",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12, pp.825-835, 2018. DOI:<https://doi.org/10.5762/KAIS.2018.19.12.825>
- [27] R. Y. Jang, *Influence of Self-Leadership and Clinical Decision Making Ability on Clinical Nurses' Performance in Small and Medium sized Hospital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Keimyung, Daegu, Korea, pp.1-31, 2016.
- [28] H. J. Dong, *The Influence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elf-Leadership on the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Jesus, Jeonju, Korea, pp.27-39, 2016.
- [29] I. S. Widyahening, A. Findyartini, R. W. Ranakusuma, E. Dewiasty, K. Harimurti, "Evaluation of the role of near-peer teaching in critical appraisal skills learning:a randomized crossover trial"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Vol.10, pp.9-15, 2019. DOI:<https://dx.doi.org/10.5116/ijme.5c39.b55b>
- [30] J. M. Miles, E. S. Scott, "A New Leadership Development Model for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Vol.35, No.4, pp.5-11, 2019. DOI:<https://doi.org/10.1016/j.profnurs.2018.09.009>
- [31] N. Mehrdada, S. Bigdelib, H. Ebrahimi, "A comparative study on self, peer and teacher evaluation to evaluate clinical skills of nursing students",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Vol.47, pp.1847-1852, 2012. DOI:<https://doi.org/10.1016/j.sbspro.2012.06.911>

김 영 희(Yeong-Hee Kim)

[정회원]



- 2003년 3월 ~ 현재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 2003년 3월 ~ 현재 : 진주보건대학교 부교수

<관심분야>

교육방법, 교내실습 및 핵심기본간호술